

공부만 잘하면 그만?... 대학 정시 '학폭' 조항 없거나 미미

학폭 전력에도 명문대 진학 공분 심각성 비해 법·제도 대응 뒤떨어져 정부·정치권, 재발 방지 한 목소리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정순신 전 감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입시에서 단 '1점'의 감점만 받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권층 자녀의 부정합 입시 혜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순신 재발 방지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윤 정부를 공식 비판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진상조사단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일 서울대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입시 과정에서 정 전 감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 전 감사(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주목되면서 대입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 반영 의견도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했던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요강을 보면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경

우 수는 성적에서 1점을 뺀다'고 적혀 있다. 서울대 측도 논란이 불거지자 규칙에 따라 1점을 감점했음에도 합격선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더 문제는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 등 타 주요 대학 정시에서는 학폭 관련 조항 자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날 강민정 의원은 "정 전 감사의 대치는 특권층 검사 자녀의 '아빠찬스'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큰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 전 감사와 그 아들이 검사 찬스를 남발하며 본인들의 잇속과 자리를 챙기는 동안 학폭 피해자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고, 또다른 피해자는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에는 공통된 찬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일명 '아빠 찬스'라면, 정 변호사 본인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검사 동료 찬스'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순신 사태가 반복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폭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날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

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 최신호 내 논문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대학생 1030명 중 34%가 학폭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54.5%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하면서 그 심각성이 주목된다. 또한, 정부의 '2022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폭 피해율이 1.7%에 그쳤던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 지적된다. 이후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해 미흡한 제도 개선 및 조치 강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앞으로 학폭 관련 변화가 주목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학폭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6兆... 사상 최대

교육부·통계청 전년도 대비 10.8% ↑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52만원



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 8000원으로 무려 47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와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과 취미교양,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했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2022년 초·중·고 학생들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결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000억원에 비해 2조 5000억원(10.8%)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은 증가한 모습이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 7000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11.8%,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평균 52만 4000원으로 전년도 48만 5000원 대비 7.9%가 늘어났다. 특히 월평균 4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4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소득별 사교육 지출 참여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 8000원으로 가

파주시, 운정신도시 교통망 대책 발표 DRT 중심 보완... 야당역 버스노선 증차

배차간격 단축 등 이용객 편의 제고 파주시가 운정 및 교하지구의 광역교통 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운정신도시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파주 운정1·2·3지구 및 교하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광역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DRT) 중심의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지구에서 야당역(경의중앙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 증차(075번 2대, 076번 1대)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 GTX-A 개통 후 운정역을 경유하도록 경로를 변경하고 추

가 증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총 운행대수 14대)을 추가 신설해 해당 지구와 광역교통수단(운정신도시~운정역 GTX~운정역 경의중앙선) 간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세부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는 향후 내부 검토(파주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교통취약(소외)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 24억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 업체 공개입찰을 통해 3개 지역(탄현, 산남, 상지석) 사업자 선정과 2개 지역(야당동, 출판2단계) 증차를 추진, 당해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내달 30일 '서울페스타 2023' 개최

행사 슬로건 '필 더 리얼 서울' 서울시는 내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내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3'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필 더 리얼 서울'이다. 서울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축제를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막 공연은 다음달 30일 오후 7시 50분부터 100분간 잠실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엔하이픈, 더보이즈, 아이쿵, 이영지 등 케이팝 스타들이 무대에 선다. 축제 기간 메인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는 서울관광 종합안내소인 '광화문 서울스퀘어'가 마련된다. 서울스퀘어 시작지점에는 '웰컴게이트와 아트웍 휴식존'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인기 캐릭터 벨리곰 조형물이 설치된다. K-드라마·뷰티·패션을 주제로 한 체험공간도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hjk1@

타들이 무대에 선다. 축제 기간 메인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는 서울관광 종합안내소인 '광화문 서울스퀘어'가 마련된다. 서울스퀘어 시작지점에는 '웰컴게이트와 아트웍 휴식존'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인기 캐릭터 벨리곰 조형물이 설치된다. K-드라마·뷰티·패션을 주제로 한 체험공간도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5 | 해질 / 18:32

3월 8일 (수) 음력 : 2월 17일

수도권 날씨 7 ~ 17°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독일, 화웨이·ZTE 기기 사용금지 계획...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심

▲ 일본 새 주력로켓 H3 발사 실패... 2단 로켓 점화 안 돼 /사진 뉴시스

▲ IAEA 사무총장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 징후 여전" /사진 뉴시스

▲ 나토,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러시아군 병력손실 ↑... 우크라 5배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사우디, 아시아·유럽 판매 원유 가격 두 달째 인상

▲ 비용 절감 나선 아마존, 무인 편의점 일부 폐쇄